

옛날 이 무실 설위할 적이
유수암에 짐장수가 설위훈
당이우다.

짐장수 시절에
고내오름엔 녹대벗인
물이 혼나 이섰는다.
놈으 곡속을 묻 먹어불곡
흐여도
느시 심질 못훈연 혼는디.
훈로은 밤이 짐장수 꿈에
산신대왕 산신백관이
나타나서,
“아멩아멩 혼영 심으민
고내오름엣 녹대벗인 물을
심어질 거매,

그 물을 심엉 타민
알을 도래가 실 거라”
훈연,
이젠 짐장수가
그 산신대왕 산신백관이
골아준대로 혼난
그 물을 심어졌수다.
짐장수가 물을 심어단
타는디.

훈 어이에
지주삼읍을 묻 돌양 오곡
훈였수다.
그영훈는디, 혼 해엔
되놈들이 쳐들어오란
무실에 재물을 약탈하고
예편네를 겁탈하고, 혼여가니
짐장수가 나수서
지주목수신디 가
수실 말을 혼고
수령들을 빌어단

성제오름 서북펜으로 간
넓은 흠에 곱양 시렌
흐여두언.
짐장수가 되놈들 신디레 간
성제오름 앞데레 홀리와 오난,
이 때 곱았단 수령들이
훈꺼번에 나산
되놈들을 절박^호연
지주목에 들어간 바치난
지주목순 상감님께 술오난.
나라에선 큰 상금이 누리고,
건공장군 배실^{??}지 주었수다.
그영^호난 짐장수가
건공장군이 되였는디.
글지후제 짐장수가
산신대왕 산신백관을 위^호는
당을 설연^호난
무실 사름들도 무심^흘 수가
엇어, 정성으로 위^흡네다.
후제 영천 이목수 시절에
이 당집에 불지더부난
이제^{??}지 그냥 누르^ㄹ옵네다.
수덕 좋고 버네 좋은
산신대왕 산신백관님이우다.

제일, 주손에 생기 맞은 날.

<애월면 금덕리 여무 70세 고일부님>

진성기, 『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』, 민속원, 1991, pp.607-608.